

# 언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행동의 관계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해당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해당 가치가 자신의 집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믿는 정도)를 구분함으로써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으나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가치 표현 행동 간의 관계는 지각된 규범적 압력과 부적인 상관을 보임(지각된 규범적 압력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가치와 행동 간의 관련성은 약해짐)을 관찰하였다. 종합하건대,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오해석이 한국 문화 맥락에서 집단주의가 유지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과 개인의 가치와 행동 간의 관련성이 지각된 규범적 압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가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가치, 행동, 실제 자기 중요도,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규범적 압력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신념으로, 여러 가능한 행동 양식, 수단 및 목적 중 무엇을 선택할 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Kluckhohn, 1951). 달리 표현하면, 가치는 어떠한 행동 양식이나 최종 상태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될 만함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자(Rokeach, 1973), 사회적 행위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범상황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목표들로 정의된다(Schwartz, 1994, 1999). 가치에 관한 그간의 연구문헌은 사람들이 행동 지침으로서 가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Feather, 1990; Maio & Olson, 1998; Seligman & Katz, 1996; Verplanken & Holland, 2002). 그러나 일부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가치와 의도된(intentional) 행동 간에 높은 상관이 보고된 반면(e.g., Bardi & Schwartz, 2003; Sagiv & Schwartz, 1995), 다른 연구들에서는 가치의 행동 예측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e.g., Kristiansen & Hotte, 1996), 가치와 행동 간 관계의 강도는 연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가치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라기보다 가치와 행동 간의 관계에 어떠한 요

\* 교신저자: 박혜경,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 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920-7303, E-mail: hpark@sungshin.ac.kr

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일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구분하였다.

###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개인은 자기 가치 우선순위, 즉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에 관한 신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우선순위,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하여도 지각한다(Rohan, 2000). 그렇다면 어떠한 표본이나 집단의 가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 집단구성원들의 개인적 가치 우선순위를 종합하는 것이다(e.g., Schwartz & Sagie, 2000; Triandis & Gelfand, 1998).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집단의 가치 우선순위는 집단구성원들이 실제로 여러 가치들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집단의 가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들을 알아내는 것이다(e.g., Fischer, 2006; Wan, Chiu, Peng, & Tam, 2007; Wan, Chiu, Tam, Lee, Lau, & Peng, 2007).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면 집단의 가치 우선순위는 가치들의 집단적 중요성에 관한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행 연구들은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한 집단의 가치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례로, 49개의 문화에서 해당 문화의 전형적인 구성원의 성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민성 평정(즉, 지각된 성격)을 얻은 후, 이를 자기보고 및 관찰자 평정을 통하여 산출한 해당 문화 구성원들의 평균 성격 점수(즉, 실제 성격)와 비교한 연구에서, 두 종류의 평정치들 간의 상관은 0에 가까웠다(Terracciano, Abdel-Khalek, Adam, Adamovova, Ahn, Ahn, et al., 2005). 본 연구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홍콩계 중국인들과 유럽계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련의 가치들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자신과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주어진 각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

길 것인지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인과 미국인 표본 모두에서 실제로 주어진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참가자들의 비율(실제 자기 중요도)은 각 문화 집단 내에서 이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된 사람들의 비율(지각된 문화적 중요도)과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Wan, Chiu, Tam, et al., 2007). 또한, 남미, 서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등 보다 폭넓은 문화권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연구참가자들 개인의 가치 중요도의 평균은 연구참가자들이 지각한 가치의 문화적 중요도의 평균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Fischer, 2006). 종합하건대, 위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 혹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녔을 것으로 지각하는 성격이나 가치가 실제로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성격이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더 나아가, 한국 문화 맥락에서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고 지각되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혹은 더 상호의존적이고 덜 독립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구성원들은 집단 내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나 태도 등에 관하여 종종 실제와는 다르게 지각하며, 이러한 오지각은 타인의 행동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 가치, 태도 등의 내적 속성들에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Allport, 1924; Katz & Allport, 1931; Prentice & Miller, 1993; Schanck, 1932). 더군다나 위와 같은 오지각은 집단 내에 전통적인 관점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그 집단, 혹은 사회구성원들의 지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상에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Zou, Tam, Morris, Lee, Lau, & Chiu, 2009). 예를 들어, Hirai(2000)는 일본인들이 스스로는 집단주의 가치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지녔으나 다른 일본인들은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프런티어와 목축경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에 명예의 문화(culture of honor; Nisbett & Cohen, 1996)가 지속되는 것 역시 이러한 문화적 지체(cultural lag; Triandis, 1994), 혹은 보수적 지체(conservative lag; Miller & Prentice, 1994)의 한 예이다(Cohen, 2001).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맥락에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이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보다 전통적인 관점과 일관될 것으로,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치 측정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는 Schwartz 가치 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chwartz,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총 57개의 가치 항목들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Schwartz(1994)는 한국을 포함한 44개의 국가에서 추출된 97개의 교사, 대학생, 일반 성인 등의 표본에서 보편적으로, 57개의 가치 항목들이 10개의 가치 유형들로 분류됨을 보였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동조(conformity)는 다른 사람들을 언짢게 하거나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tradition)은 전통 문화나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과 사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심(benevolence)은 개인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복지 보존과 향상을 의미하며,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인류와 자연의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포용과 보호를 의미한다.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stimulation)은 삶에서의 흥분, 새로움 및 도전을 나타내며, 쾌락주의(hedonism)는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성취(achievement)는 사회적 기준에 걸맞은 능력을 보임으로써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권력(power)은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원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안전(security)은 사회, 자신,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조화 및 안정을 의미한다. 최근에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위와 같은 Schwartz의 가치

구조와 내용을 한국 문화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김연신, 최한나, 2009).<sup>1)</sup>

표 1. Schwartz의 가치 유형들과 가치 항목들

가치 유형	가치 항목
동조	예의, 자기 수양, 부모와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전통	전통에 대한 존중, 온건한, 겸허한, 삶에서 내뿜을 받아들이는, 독실한
자비심	충실한, 정직한, 도움을 주는, 책임감 있는, 용서하는
보편주의	평등, 평화로운 세계, 자연과의 합일,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 정의, 마음이 넓은, 환경을 보호하는
자기주도성	자유, 창의성, 독립적인,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 호기심 있는
자극	흥미진진한 삶, 다채로운 삶, 대담한
쾌락주의	즐거움, 삶을 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취	야심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유능한, 성공하는
권력	사회적 권력, 부, 권위, 나의 공적인 이미지를 보호하는
안전	사회 질서, 국가 안보, 호의를 되갚음, 가족의 안전, 깨끗한

1) 김연신과 최한나는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에 대하여 유사성 구조 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Schwartz(1992)의 보편적 가치이론이 제시하는 가치 구조와 내용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Schwartz가 제시한 10개의 가치 유형들 중 8개는 한국 대학생 표본에서도 독립된 가치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조와 자비심은 Schwartz의 보편적 가치이론이 제시한 바와는 달리 구별된 가치 영역이 아닌 통합된 영역으로 묶였다. 김연신과 최한나는 한국 문화 맥락에서 동조와 자비심의 가치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이나 규범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 영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동조와 자비심을 집단주의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치 유형으로 파악한 본 연구와 일관된다.

Schwartz(1990)는 집단주의-개인주의라는 포괄적인 차원에 비하여 보다 세부적인 가치 유형들을 찾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Schwartz의 가치 유형들 중 많은 부분이 집단주의-개인주의, 혹은 상호의존성-독립성의 차원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Schwartz(1992)는 동조, 전통 및 자비심의 가치는 집단을 이롭게 하는 반면,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그리고 권력의 가치는 개인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Schwartz가 전자의 가치들은 집단주의 및 상호의존성과, 후자의 가치들은 개인주의 및 독립성과 관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Triandis(1996)는 동조와 안전의 가치는 집단주의적 구성개념인 반면, 자기주도성과 쾌락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적 구성개념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Oishi, Schimmack, Diener와 Suh(1998)는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독립적 자기관의 구분(Markus & Kitayama, 1991)에 기초하여, 동조, 전통 및 자비심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자기주도성은 독립적 자기관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요컨대,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동조, 전통, 자비심 및 안전의 가치는 집단주의 또는 상호의존성과, 자기주도성, 자극 및 쾌락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 또는 독립성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동조, 전통, 자비심 및 안전과 같이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치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인 반면, 자기주도성, 자극 및 쾌락주의와 같이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연관되는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Schwartz(1990)는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이들을 덜 배려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며(문화성향과 도움행동의 관계에 관한 수렴적인 연구 증거로 Conway, Ryder, Tweed, & Sokol, 2001 참조), 보편주의를 자비심과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문화심리학 연구문헌은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들과 외집단 구성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립적인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비자기(non-self) 간의 구분이 핵심일 뿐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임을 보여준다(Heine, 2008).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복지 보존과 향상을 중요시하는 자비심의 가치가 집단주의 성향과 연관되는 것과는 달리, 인류 전체의 복지와 자연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보편주의의 가치는 반드시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되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편주의는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것으로 지각되리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성취와 권력은 집단보다 개인을 이롭게 하는 가치로 간주되었으나, 실제 문화 간 비교에서는 부, 사회적 권력 및 권위와 같이 성취와 권력의 가치 유형들을 구성하는 하위 가치 항목들이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보다 집단주의적인 국가에서 더욱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1992). 따라서 성취와 권력의 가치의 경우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비교에 관하여 선험적인 가설을 세우지 않았다.

### 가치와 행동의 관계

이상에서 논의된 바처럼 자기 가치 우선순위와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가치 우선순위 중 어느 쪽을 따라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Rohan, 2000). 일찍이 Allport(1955)는 개인적 존재양식과 “종족의 일원으로서의(tribal)” 존재양식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존재양식을 조율하는 노력이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행위가 가져오는 잠재적인 결과들의 유인가(valence; Feather, 1995), 행위자의 도덕적 추론(Kristiansen & Hotte, 1996), 해당 가치가 자기개념에 있어 중심이 되는지 여부(Verplanken & Holland, 2002), 자기개념 명료성(Kristiansen & Hotte, 1996), 주어진 상황을 가치 적절하게 해석하였는가 여부(Vallacher & Wegner,

1987)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존재양식과 “종족의 일원으로서의” 존재양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규범적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개인이 자기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정도는 지각된 규범적 압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행동 영역에서는, 규범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지각되는 영역에 비하여 개인의 자기 가치와 행동 간 관련성이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수렴적인 증거를 얻고자, 가치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문헌을 참조하여 (1) 표본 내 가치 표현 행동(value-expressive behavior)의 평균 빈도(Bardi & Schwartz, 2003), (2)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Bardi & Schwartz, 2003), 그리고 (3)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을 규범적 압력의 세 가지 지표로 선정하였다.

첫째, 가치 표현 행동의 평균 빈도, 즉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거나 그 가치의 달성을 촉진하는 행동(예컨대,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극의 가치를,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성취의 가치를 각각 표현하는 행동)이 집단 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행동이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 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행동하고자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 즉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보통 무엇을 하는가를 고려한다(Cialdini & Trost, 1998). 그러므로 만약 어떠한 행동이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을 관찰한다면, 그 행동을 규범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전적인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규범에 동조한다(e.g., Asch, 1956; Cialdini, Kallgren, & Reno, 1991; Deutsch & Gerard, 1955). 만약 자신이 속한 집단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개인은 그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가치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요컨대, 집단

수준에서 어떠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수록(즉, 해당 행동이 규범적인 것으로 비춰질수록) 어떤 개인이 이 행동을 행하는 빈도와 이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간의 상관은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Bardi와 Schwartz(2003)는 개인의 자기 가치 중요도와 가치 표현 행동의 빈도가 관련된 정도(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기초하여 행동함을 의미)와 표본 내 가치 표현 행동들의 평균 빈도 사이에서 Spearman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음의 상관, 즉 어떠한 행동이 집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개인이 해당 행동을 행하는 빈도는 스스로 이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덜 관련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본 내 가치 표현 행동의 평균 발생 빈도를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여 위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집단 평균은 해당 가치가 실제로 집단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도를 나타낸다(Bardi & Schwartz, 2003; Schwartz & Sagie, 2000; Triandis & Gelfand, 1998). 만약 집단에게 실제로 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한 양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약하게 작용한다면, 이러한 가치에 관해서는 개인의 실제 자기 중요도가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즉, 규범적 압력이 약하므로 개인이 주어진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만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행할 것이다. 반대로, 집단에게 실제로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한 양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이러한 가치의 경우 개인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개인의 행동 간의 관련성이 약할 것이다. 즉, 규범적 압력이 강하므로 개인이 주어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는 무관하게 해당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이 규범적인 압력을 나타낸다면, 이 지표는 개인 수준에서의 가치-행동 관계와 부적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이 행동에 대한 규범적 압력을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던 선행 연구에서, 가설과 일관되게 Schwartz의 열 가지 가치들의 실

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과 개인의 가치-행동 관계 간에 유의미한 부적 서열 상관이 관찰되었다(Bardi & Schwartz, 2003). 즉, 집단에서 가치의 실제 중요도가 낮아질수록 해당 가치의 개인적 중요도와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 빈도 간의 관련성은 높아졌던 반면, 집단에서 가치의 실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주어진 가치의 개인적 중요도와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 빈도 간의 관련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이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규범적 압력을 반영하기에 타당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이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을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집단 평균은 해당 가치의 집단적 중요성에 관한 구성원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집단 평균과 같은 맥락으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가치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양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규범적 압력이 비교적 약할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 압력이 약할 때에는 개인의 가치가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평균이 규범적인 압력을 반영한다면,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집단 평균이 높은 가치의 경우 개인적 중요도와 행동 빈도 간 상관이 낮을 것이며,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집단 평균이 낮은 가치의 경우 개인적 중요도와 행동 빈도 간 상관이 높을 것이다.

지각된 합의성(perceived consensus)이 사회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뿐만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통해서도 개인의 가치와 행동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일례로, 인종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즉, 편견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을 때), 사회적 합의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해당 인종 집단의 구성원에게 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다(Sechrist & Stangor, 2001).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고 지각된 가치와 신념의 영향을 개인의 가치와 신념의 영향과 비교한 연구들

역시 지각된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기질주의(dispositionism)에 관한 신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와 어떠한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은 각각 귀인과 사후가정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에서 나타나는 문화 간의 차이를 매개하였으나, 기질주의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조절초점은 위와 같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Zou et al., 2009). 그리고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아닌 규범적인 집단주의, 즉 집단주의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있는가에 관한 지각은 응종(compliance)에서 나타나는 문화 간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을 뿐만 아니라(Zou et al., 2009), 책임 귀인과 피해 지각에서 나타나는 문화차를 설명할 수 있었다(Shteynberg, Gelfand, & Kim, 2009). 더불어, 사회 규범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기주도성 및 자극 관련 행동의 변산은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나, 동조와 전통 관련 행동의 변산의 경우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규범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로 예측할 수 있었다(Fischer, Ferreira, Assmar, Redford, Harb, Glazer, et al., 2009). 가치의 영역에서도, 지각된 문화적 중요도는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문화적 동일시의 수준을 더 잘 예측함이 관찰되었다(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 또한, 가치의 개인적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규범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행동(구체적으로, 보편주의 관련 행동)의 빈도와, 가치의 문화적 중요도는 규범에 의하여 지배되는 행동(구체적으로, 동조 행동)의 빈도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Fischer, 2006). 요컨대, 위의 연구들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공유된 바에 관한 지각이 개인의 사회 판단 및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실제로 공유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범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연구 개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고 지각되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혹은 더 상호의존적이고 덜 독립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기 가치 우선순위와 함께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지각된 규범적 압력에 따라 개인의 가치와 행동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규범적 압력이 약한 영역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행동이 비교적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이나, 지각된 규범적 압력이 강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행동 간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얼마나 빈번하게 행하였는지를 측정하고, 이 행동 빈도가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세 가지 지표, 즉 가치 표현 행동들의 표본 내 평균 빈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91명이 학점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19-26세, 평균 연령은 20.46세였다( $SD = 1.64$ ). 연구참가자들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소속은 71명, 인문대학은 10명, 생활과학대학은 7명, 사범대학은 1명, 미확인은 2명으로,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측정도구

#### Schwartz의 가치 질문지: 자기 참조형

자기 가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총 57개의

가치 항목들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치 항목들을 모두 읽은 후, 먼저 자신에게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여 7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원칙을 거스르는 가치를 선택하여 -1로 평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가치들 각각이 자기 삶의 원칙으로서 중요한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 중요하지 않다, 6: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Schwartz의 분류 체계를 따라, 동조, 전통, 자비심, 보편주의,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 및 안전과 같은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에 해당하는 가치 항목들의 중요도 평정치를 평균하여 자기 가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sup>2)</sup> 가치 유형별 항목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전통(.38)과 성취(.53)를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들에 대하여 .60 이상이었고, 내적합치도들의 평균은 .65였다.

#### Schwartz의 가치 질문지: 사회 참조형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치의 지각된 문화적 중요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을 참조하여, 연구참가자 출신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가치 우선순위를 보고하도록 과제를 변경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출신지를 명시하고, 자기 참조형 질문지에서와 동일한 57개의 가치 항목들 각각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였다. 자기 참조형 질문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의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들의 삶의 원칙에 반하는 가치를 각각 7과 -1로 평정한 후, 나머지 가치들의 중요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 중요하지 않다, 6: 매우 중요하다). 이후, Schwartz의 열 가지 가치 유형별 평균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가치 유형별 항목 간

2) Schwartz(2009)가 제안한 대로, 가치 유형별 평균 중요도 점수 산출에는 여러 문화에 걸쳐 높은 신뢰도를 보였던 46개의 가치 항목들만을 포함시켰다(표 1 참조).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동조(.55), 전통(.46) 및 안전(.53)을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들에 대하여 .60 이상이었고, 내적합치도들의 평균은 .65였다.

### 가치 표현 행동 질문지

Schwartz의 열 가지 가치들을 반영하는 여러 행동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행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Bardi와 Schwartz(2003)가 개발한 가치 표현 행동 질문지(value-expressive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Bardi와 Schwartz(2003)는 잠재적으로 여

러 유형의 가치들과 관련될 수 있는 행동들을 제외한, 주로 한 유형의 가치만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지칭하는데에 “가치 표현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타인을 지배하는 행동은 권력의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간주). 질문지에는 가치 유형마다 두 개씩, 총 20개의 가치 표현 행동 항목들이 하나의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된다(표 2 참조). 연구참가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주어진 행동들을 행하였던 상대 빈도, 즉 각각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 수에 견주어 실제 해당 행동을 행하였던 횟수를 평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각각의 행동을 할 기회가 모두 몇 차례 있었는지 생각한 후, 이에 비하여 실제로 해당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행하였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문을 받았다. 지시문 뒤에는 행동의 상대 빈도를 평정하는 방법의 예가 제시되었다. 평정에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0: 전혀 하지 않았다, 4: 항상 하였다). 각 가치 유형과 관련된 2개의 행동 빈도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10개의 가치 표현 행동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2. 가치 표현 행동 항목들

가치 유형	가치 표현 행동 항목
동조	부모님께 순종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립을 피한다 명절에 전통 풍습을 따른다
전통	내가 성취한 바와 나의 재능에 관하여 겸손해한다
자비심	이웃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기로 쉽게 승낙한다 내가 하였던 약속들을 지킨다
보편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사용한다
주의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에 앞서 그 아래에 어떤
자기주도	목적이 깔려있는지 따져본다
성	나의 생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자극	스릴러물을 본다 관습적이지 않은 일들을 한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지낸다
쾌락주의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에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다 많은 일거리들을 맡는다
성취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다 할지라도 시험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 나의 선호와 의견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는다
권력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친구들과 대인관계들을 선택한다
안전	낯선 사람들에게 문 열어주기를 삼간다 국산품들을 산다

### 측정도구의 번역

Schwartz의 가치 질문지와 가치 표현 행동 질문지를 연구에 사용하기에 앞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두 명의 이중언어자들이 각각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된 영문판을 원본과 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절차

이 연구는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가치 질문지와 행동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서 및 자기 참조형 가치 질문지와 사회 참조형 가치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서를 상쇄평형화함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순서 조건들이 만들어졌고, 연구참가자들은 이러한 네 조건들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할당된 조

건에서 지정한 순서대로 연구과제들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다. 소책자에는 측정도구 사이마다 5~10 분가량 소요되는 무관 과제들(filler tasks)이 삽입되어 있었고, 과제 작성에 별도의 시간 제한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종료 1주 후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 결 과

생애의 3분의 1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 측정도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명의 연구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전분석에서 평정 순서의 효과, 즉 가치 중요도와 행동 빈도 중 무엇을 먼저 평정하였는가, 그리고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중 어느 쪽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자기 가치 우선순위, 즉 개인의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중심화(centering)하였다(Fischer, 2004, 2006). 먼저 각 연구참가자의 57개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 다음, 이 가치 중요도 평정 평균을 각각의 가치 중요도 원점수에서 뺀 차이점수를 구하였다. 이 차이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여 연구참가자별로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의 실제 자기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가치 유형별로 연구참가자 전체의 실제 자기 중요도 평균을 계산하여, 이 평균 점수(즉,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를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즉 지각된 사회적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중심화하였다. 이후, 중심화된 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여 연구참가자별로 10개의 가치 유

형들 각각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가치 유형별로 연구참가자 전체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균을 산출하여, 이 평균 점수(즉,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를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또다른 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표본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이들이 사회적인 중요도가 높을 것이라고 지각한 가치들이 부분적으로만 중복될 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대체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제시된 바처럼, 실제 자기 중요도는 쾌락주의( $M = 1.12, SD = 1.16$ )와 성취( $M = .59, SD = .90$ )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통( $M = -1.53, SD = .74$ )과 권력( $M = -.96, SD = 1.37$ )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는 성취( $M = 1.01, SD = 1.22$ )와 안전( $M = .70, SD = .85$ )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극( $M = -.99, SD = 1.36$ )과 전통( $M = -.89, SD = .96$ )에서 가장 낮았다. 이 비교를 통하여, 표본 내에서 실제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거나 낮은 가치들이 표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회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거나 낮은 것으로 지각된 가치들과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개의 가치 유형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상관분석에서, 두 지표들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나 이 상관이 완전한 정적 상관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8) = .64, p < .05$ .<sup>3)</sup>

3) 본 연구에서는 .64의 상관계수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관련성을 갖는 동시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을, 즉 두 유형의 가치 중요도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변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측정도구들이 완벽하게 신뢰로울 때 기대되는 상관관계를 제시해주는 공식인 약소화의 교정(correction for attenuation)에 의거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측정도구들의 신뢰도가 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65보다 높았다면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에 .64보다 더 강한 상관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소화의 교정을 거친 상관, 즉 측정오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상징하고 계산한 상관이

표 3.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

가치 유형	실제 자기 중요도 <i>M (SD)</i>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i>M (SD)</i>
동조	-.38 (.88)	-.21 (1.00)
전통***	-1.53 (.74)	-.89 (.96)
자비심	.05 (.76)	-.07 (.91)
보편주의**	-.29 (.59)	-.55 (.89)
자기주도성***	.46 (.86)	-.07 (.84)
자극*	-.63 (1.22)	-.99 (1.36)
쾌락주의**	1.12 (1.16)	.61 (1.20)
성취**	.59 (.90)	1.01 (1.22)
권력***	-.96 (1.37)	.53 (1.64)
안전***	.22 (.91)	.70 (.85)

\* $p < .05$ ; \*\* $p < .01$ ; \*\*\* $p < .001$ . (일방검증)

위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기 가치와 지각된 사회적 가치 간 비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개인들의 실제 자기 가치보다 지각된 사회적 가치가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인지를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조, 전통, 자비심 및 안전과 같이 집단주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가치 유형들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자기주도성, 자극 및 쾌락주의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된 가치 유형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현실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측정도구들의 평균 신뢰도는 측정에 사용된 척도 항목들의 수를 고려할 때 사회과학 연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다(Cortina, 1993; Nunnally, 1978). 둘째, 사회과학 연구에 측정오차가 개입되지 않기란 어렵고, 측정오차로 인하여 두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이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두 유형의 가치 중요도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상관이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 즉 공통 방법 편향(common methods bias; Spector, 2006)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an, Chiu, Tam 등(2007)의 연구 2에서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문화적 중요도 사이에서 .68의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강하지만 완전한 상관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p. 342). 또한, 측정과 심리검사 개발 영역에서도 이순목, 김교현, 최용성, 이홍표, 김중남, 김수진 등(2011)은 척도들 간의 상관이 .57에서 .72의 범위에 놓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유사 용도의 척도와는 충분히 변별이 된다는 증거(변별타당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다(p. 1073).

것으로 지각되리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위의 예상은 대체적으로 지지되었다. 먼저, 전통은 비록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정되었으나, 가설과 일관되게 자기 중요도( $M = -1.53, SD = .74$ )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M = -.89, SD = .96$ )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t(89) = 5.15, p < .001$  (일방검증).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안전 역시 자기 중요도( $M = .22, SD = .91$ )보다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M = .70, SD = .85$ )가 높게 평정된 가치 유형이었다,  $t(89) = 4.35, p < .001$  (일방검증).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동조와 자비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t_s(89) = 1.30$ 과  $.97$ , 모두 *n.s.* 반면,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된 가치 유형들에서는 일관되게 기대했던 차이를 관찰하였다. 먼저, 자기 주도성의 경우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M = -.07, SD = .84$ )보다 자기 중요도( $M = .46, SD = .86$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t(89) = 4.22, p < .001$  (일방검증). 자극의 가치 또한 자기 중요도( $M = -.63, SD = 1.22$ )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M = -.99, SD = 1.36$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89) = 1.93, p < .05$  (일방검증). 이 결과는 자극이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쾌락주의 역시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M = .61, SD = 1.20$ )에 비하여 자기 중요도( $M = 1.12, SD = 1.16$ )가 높은 가치 유형이었다,  $t(89) = 3.04, p < .01$  (일방검증).

### 가치와 행동의 관계

가치와 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가치 유형에 따른 행동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동조( $M = 2.47, SD = .67$ ), 안전( $M = 2.45, SD = .67$ ), 자비심( $M = 2.39, SD = .69$ )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들을 가장 자주 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가장 드물게 행하였다고 보고된 행동들은 권력( $M = 1.18, SD = .69$ )과 같이 집단주의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극( $M = 1.36, SD = .86$ )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들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가치와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개의 가치 유형 각각에 대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와 가치 표현 행동 빈도 간 Pearson 상관을 구하였다(표 4). 그 결과, 모든 가치 유형에서 정적인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 8개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1개의 상관은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이 가치를 반영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더욱 빈번하게 행함을 보여준다.

표 4. 가치 표현 행동 빈도의 표본 평균 및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행동 빈도 간의 상관

가치 유형	행동 빈도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상관
	M (SD)	r
동조	2.47 (.67)	.30**
전통	1.58 (.59)	.52***
자비심	2.39 (.69)	.30**
보편주의	1.68 (.69)	.34***
자기주도성	1.88 (.83)	.50***
자극	1.36 (.86)	.39***
쾌락주의	2.27 (.77)	.20†
성취	2.16 (.90)	.16
권력	1.18 (.69)	.23*
안전	2.45 (.67)	.22*

.05 < tp < .10; \*p < .05; \*\*p ≤ .005; \*\*\*p ≤ .001. (양방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특정한 양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크다고 지각될수록 개인의 가치와 행동의 관련성은 약해지리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표현 행동의 표본 내 평균 빈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을 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여 위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측정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가자들의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가치 유형에 따라 평균함으로써 개인별로 10개의 가치 유형들에 대한 실제 자기 중요도를 얻었다(측정치 1). 그리고 이 개인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를 전체 연구참가자들에 걸쳐 평균함으로써 10개의 가치 유형 각각에 대한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을 구하였으며(측정치 2; 표 3 참조), 이를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참가자들의 사회적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가치 유형에 따라 평균함으로써 개인별로 10개의 가치 유형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개인별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전체 연구참가자들에 걸쳐 평균함으로써 10개의 가치 유형 각각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을 구하였으며(측정치 3; 표 3 참조), 이를 규범적 압력의 또다른 지표로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참가자들의 가치 표현 행동 빈도를 가치 유형에 따라 평균함으로써 개인별로 10개의 가치 표현 행동 빈도를 얻었다(측정치 4). 그리고 이 개인별 가치 표현 행동 빈도를 전체 연구참가자들에 걸쳐 평균함으로써 10개의 가치 유형 각각에 관한 표본 내 가치 표현 행동의 평균 빈도를 구하였으며(측정치 5; 표 4 참조), 이를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 유형별로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상관을 구하였다(측정치 6; 표 4 참조). 즉, 연구참가자들 전체에 걸쳐 개인이 실제로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행한 횟수 간의 상관을 구하였으므로, 각 가치 유형마다 하나의 상관계수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어떠한 행동이 집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집단구성원 개인이 해당 행동을 행하는 빈도는 개인적으로 이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덜 관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 가지 유형의 가치 표현 행동들의 표본 내 평균 빈도(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첫 번째 지표)와 열 가지 가치 유형별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상관계수(가치-행동 관계의 강도) 사이에서 Spearman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가설과 일관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_s(8) = -.39, p = .13$  (일방검증). 이 결과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개인이 주어진 행동을 행하는 빈도와 이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간의 관련성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떠한 가치가 집단에서 실제로 더 중요하게 여겨질수록 개인이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행하는 빈도는 개인적으로 이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덜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 가지 가치 유형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두 번째 지표)과 가치-행동 관계의 강도 사이에서 Spearman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관찰하였다,  $r_s(8) = -.60, p < .05$  (일방검증). 이를 통하여, 표본에서 특정 가치의 실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에게 있어 해당 가치가 중요한 정도와 이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행하는 빈도 간의 상관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가치가 집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지각될수록 개인이 이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행하는 빈도는 스스로 이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약하게 관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 가지 가치 유형들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지각된 규범적 압력의 세 번째 지표)과 가치-행동 관계의 강도 사이에서 Spearman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관찰하였다,  $r_s(8) = -.84, p = .001$  (일방검증). 이 결과로부터 어떠한 가치가 집단에게 중요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해당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이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을 행하는 빈도와의 관련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sup>4)</sup>

4)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간 상관계수 값들을 등간적으로 변환하였을 때에도 규범적 압력의 지표들과의 사이에서 음의 상관이 얻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간 상관계수들을 Fisher's r-to-z transformation한 후 세 규범적 압력의 지표들과의 사이에서 Pearson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변환된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간 상관과 모든 규범적 압력의 지표들과의 사이에서 점수 변환 이전의 서열상관과 유사한 크기의 부적 상관을 관찰하였다, 각각  $r(8) = -.40, p = .13; r(8) = -.51, p = .07; r(8) = -.79, p < .005$  (모두 일방검증).

## 논 의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으나 개인 주의적인 가치들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개인의 가치에 기초하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지각된 규범적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거나 낮은 가치 유형들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낮은 가치 유형들 간의 비교로부터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이 상관관계가 완전한 정적 상관관계는 거리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를 지각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파악한 다른 이들의 실제 특성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an, Chiu, Tam, et al., 200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의 실제 자기 중요도를 종합한 것이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Fischer, 2006; Rohan, 2000;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과 일관되게 두 종류의 가치 중요도가 개념적, 경험적으로 구분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비교에서 본 연구의 목표를 위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집단주의적인 가치들과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비교 결과, 집단 주의적인 가치들 중 전통과 안전의 경우 가설과 일관되게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동조와 자비

심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자기주도성, 쾌락주의 및 자극 모두,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대체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행동에 관한 규범적 압력을 반영하는 표본 내 가치 표현 행동의 평균 빈도,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 모두,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행동 빈도 상관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특정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의 표본 내 평균 빈도가 높아질수록, 표본 내에서 특정한 가치의 실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주어진 가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개인이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이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빈도 간의 관련성이 낮아졌다. 이 결과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규범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범적 압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개인이 비교적 자신의 가치와 일관되게 행동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위의 결과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간의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공동체 및 사회 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지각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함을 보여준 바 있다(Zou et al., 2009).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지적, 행동적 반응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생각이나 신념에 관한 사람들의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e.g., Hardin & Higgins, 1996; Shteynberg et al., 2009).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념은 직접 파악이 불가능하며 외적으로 표현되는 말이나 행동에 기초하여 유추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공적인 말이나 행동에 있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내적 속성들에 관한 정확한 유추는 어려울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자들은 스스로가 집단과 사회의 바람직한

고 적절한 구성원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e.g., Imada & Yussen, 2012; Lyons & Kashima, 2003; Miller, Monin, & Prentice, 2000), 공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말이나 행동이 사적인 견해나 신념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의 기저에 어떠한 생각, 가치, 신념 등이 깔려있는지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오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고된 행동들이 동조, 안전 및 자비심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들이었음은 중요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반영된 행동들을 빈번하게 행하는 것을 관찰한다면, 실제로 그러한 정도 이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주의를 옹호하고 장려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 역시 지각된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여 집단주의적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단 수준에서의 오지각을 공고히 하고 집단주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오해석이 한국 문화 맥락에서 집단주의가 유지되는 데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다수의 무지가 기존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전통적으로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던 문화 맥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는 반대로 개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가치들이 더 개인주의적이고 덜 집단주의적일 것인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의 표본 평균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 중 후자가 개인의 가치-행동 상관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각된 문화적 중요도가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문화적 동일시 수준을 더 잘 예측하였음을 보인 선행 연구(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와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 성향을 넘어서서 지각된 문화 성향이 피해 지각, 책임 귀인, 응중 등 다양한 사회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의 문화 간 변산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었음을 보인 기존 연구들(Fischer, 2006; Fischer et al., 2009; Shteynberg et al., 2009; Zou et al., 2009)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더 나아가 위의 결과는 집단구성원들에 의하여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에 비하여 집단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지각되는 가치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더 큰 규범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지지하며, 문화의 핵심 가치들을 밝혀내는 데에 있어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구분함으로써, 한국 문화 맥락에서 집단주의적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들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집단이,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은 집단주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집합”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또한, 문화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한국과 다르게 문화적으로 독립성이 장려되는 맥락에서도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규범적 압력을 고려하여 가치와 행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규범적 압력에 따라 가치를 토대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 몇몇 선행 연구들(Bardi & Schwartz, 2003; Fischer, 2006)의 결과를 확장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의 표본 평균이 행동에 관한 규범적 압력의 지표로 유용함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최근 문화심리학에서 각광 받고 있는 상호주관적 접근(intersubjective approach; 개관을 위해서는 Chiu, Gelfand, Yamagishi, Shteynberg, & Wan, 2010 참조)이 인간 행동에 관한 문화의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하

는 데에 타당함을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방법론적인 제한점이 있다. 첫째, Wan, Chiu, Tam 등의 연구(2007)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처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한 연구 회기 내에서 평정하도록 한 것이 두 종류의 가치 중요도 간의 차이를 과장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연구참가자가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조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사이의 차이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하여 가치 표현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개인 내의 일관성 동기로 인하여 가치 중요도와 행동 빈도 간의 상관이 과대추정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Greenwald, 1980). 그러나 가치와 행동 간의 관계의 강도가 가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패턴이 가설과 일관된 방향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방법론적 제약이 본 연구의 의의를 약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치 표현 행동 빈도에 관한 자기 평정과 파트너의 평정, 그리고 자기 평정과 동년배의 평정 간에 일관되게 높은 정적 상관을 관찰한 선행 연구(Bardi & Schwartz, 2003)를 고려할 때, 위의 방법론적 제약이 본 연구의 결과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 연구참가자의 가족구성원이나 룸메이트, 친한 친구 등으로부터 연구참가자가 일련의 가치 표현 행동을 얼마나 빈번하게 보이는지에 관한 평정을 얻고, 이러한 관찰자 평정이 연구참가자의 실제 자기 가치 중요도 및 연구참가자가 지각한 사회적 가치 중요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위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설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행동 빈도에 대한 회고적 자기보고에 따를 수 있는 편향(e.g., Ross, McFarland, & Fletcher, 1981)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을 행한 횟수 대신 행동의 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회기 내에서 측정된 가치 중요도와 가치 표현 행동 빈도 간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치와 행동 사이의 인과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로 내재화(internalization)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특정한 양식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가치와 행동을 반복 측정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16.
- 이순목, 김교현, 최용성, 이홍표, 김종남, 김수진 등 (2011). 한국형 도박행동 H척도의 개발: 고수준 도박자 대상의 연구용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1053-1082.
- Allport, F. H. (1924). *Social psycholog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Allport, G. W. (1955). *Becoming: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Asch, S.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Whole No. 416).
- Bardi, A., & Schwartz, S. H. (200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207-1220.
- Chiu, C.-Y., Gelfand, M. J., Yamagishi, T., Shteynberg, G., & Wan, C. (2010). Intersubjective culture: The role of intersubjective perceptions in cross-cultural researc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 482-493.
- Cialdini, R. B., Kallgren, C. A., & Reno, R. R. (1991).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A theoretical refinement and reevaluation of the role of norms in human behavior.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201-23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ialdini, R. B., & Trost, M. R. (1998). Social influence: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151-192). New York, NY: McGraw-Hill.
- Cohen, D. (2001). Cultural variation: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51-471.
- Conway, L. G., Ryder, A. G., Tweed, R. G., & Sokol, B. W. (2001). Intranational cultural variation: Exploring further implications of collectivism with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681-697.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8-104.
- Deutsch, M., &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Feather, N. T. (1990). Bridging the gap between values and actions: Recent applications of the expectancy-value model.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151-19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eather, N. T. (1995). Values, valences, and choice: The influence of values on the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choice of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35-1151.
-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A classification of

-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 Fischer, R. (2006). Congruence and functions of personal and cultural values: Do my values reflect my culture's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19-1431.
- Fischer, R., Ferreira, M. C., Assmar, E., Redford, P., Harb, C., Glazer, S. et al. (2009). Individualism-collectivism as descriptive norms: Development of a subjective norm approach to culture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187-213.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ardin, C. D., & Higgins, E. T. (1996). Shared reality: How social verification makes the subjective objective.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The interpersonal context* (Vol. 3, pp. 28-84). New York, NY: Guilford.
- Heine, S. J. (2008).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NY: W. W. Norton.
- Hirai, M. (2000). Stereotypes about the Japanese: Differences in evaluations between "the Japanese" and "myself."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103-113.
- Imada, T., & Yussen, S. R. (2012). Reproduction of cultural values: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stories people create and transm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114-128.
- Katz, D., & Allport, F. H. (1931). *Students' attitudes*. Syracuse, NY: Craftsman Press.
- Kluckhohn, C. K. M. (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S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pp. 388-43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ristiansen, C. M., & Hotte, A. (1996). Morality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the when and how of value-attitude-behavior relations. In C. Seligman, J. M. Olson, & M. P. Zanna (Ed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Vol. 8, pp. 77-10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yons, A., & Kashima, Y. (2003). How are stereotypes maintained through communication? The influence of stereotype share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89-1005.
- Maio, G. R., & Olson, J. M. (1998). Values as truisms: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94-31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D. T., Monin, B., & Prentice, D. A. (2000). Pluralistic ignorance and inconsistency between private attitudes and public behaviors. In D. J. Terry & M. A. Hogg (Eds.), *Attitudes, behavior, and social context: The role of norms and group membership* (pp. 95-113).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iller, D. T., & Prentice, D. A. (1994). Collective errors and errors about the coll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41-550.
- Nisbett, R. E., &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Westview Press.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ishi, S., Schimmack, U., Diener, E., & Suh, E. M. (1998). The measurement of valu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177-1189.
- Prentice, D. A., & Miller, D. T.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256.
- Rohan, M. J. (2000). A rose by any name? The values constru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255-277.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NY: Free Press.
- Ross, M., McFarland, C., & Fletcher, G. J. O. (1981). The effect of attitude on the recall of personal hist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627-634.
- Sagiv, L., & Schwartz, S. H. (1995). Value priorities and readiness for out-group social conta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37-448.
- Schanck, R. L. (1932). A study of a community and its groups and institutions conceived as behaviors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Monographs*, 43, 28-32.
- Schwartz, S. H. (1990). Individualism-collectivism: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139-157.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New York, NY: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1999). A theory of cultural values and some implications for work.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 23-47.
- Schwartz, S. H. (2009). Draft users manual: Proper use of the Schwartz Value Survey, version 14 January 2009, compiled by Romie F. Littrell. Auckland, New Zealand: Centre for Cross Cultural Comparisons, <http://www.crossculturalcentre.homestead.com>.
- Schwartz, S. H., & Sagie, G. (2000). Value consensus and importance: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465-497.
- Sechrist, G. B., & Stangor, C. (2001). Perceived consensus influences intergroup behavior and stereotype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45-654.
- Seligman, C., & Katz, A. N. (1996). The dynamics of value systems. In C. Seligman, J. M. Olson, & M. P. Zanna (Ed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Vol. 8, pp. 53-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teynberg, G., Gelfand, M. J., & Kim, K. (2009). Peering into the "magnum mysterium" of culture: The explanatory power of descriptive norm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46-69.
- Spector, P. E. (2006). Method variance in organizational research: Truth or urban legend?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9, 221-232.
- Terracciano, A., Abdel-Khalek, A. M., Adam, N., Adamovova, L., Ahn, C.-k., Ahn, H.-n. et al. (2005). National character does not reflect mean personality trait levels in 49 cultures. *Science*, 310, 96-100.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NY: McGraw-Hill.
- Tria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7). What do people think they'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huma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94, 3-15.

- Verplanken, B., & Holland, R. W. (2002). Motivated decision making effects on activation and self-centrality of values on choic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434-447.
- Wan, C., Chiu, C.-Y., Peng, S., & Tam, K.-P. (2007). Measuring cultures through intersubjective cultural norm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relative identification with two or more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213-226.
- Wan, C., Chiu, C.-Y., Tam, K.-P., Lee, S.-L., Lau, I. Y.-M., & Peng, S. (2007). Perceived cultural importance and actual self-importance of values in cultur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37-354.
- Zou, X., Tam, K.-P., Morris, M. W., Lee, S.-L., Lau, I. Y.-M., & Chiu, C.-Y. (2009). Culture as common sense: Perceived consensus versus personal beliefs as mechanisms of cultur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579-597.

# When Does Behavior Reflect Personal Values? A Study on Values' Actual Self-Importance, Perceived Social Importance, and Value-Behavior Relations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en do individuals act on their personal values? Based on a distinction between actual self-importance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personally endorse certain values) and perceived social importance of values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consensually believe the values to be important to their group), this study found that collectivistic values were rated higher in the perceived social importance than in the actual self-importance while the opposite was the case for individualistic values.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values and self-reported value-expressive behaviors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normative pressures such that personal values related the strongest to the behaviors for which normative pressures were perceived to be the weakest. These data were interpreted to suggest that a collective misrepresentation of cultural values might contribute to the persistence of collectivism 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and that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values and behaviors might be partly masked by perceived normative pressures.

*Keywords:* values, behavior, actual self-importance, perceived social importance, normative pressures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06월 2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8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8월 14일